



청원서

유엔(United Nations) 사무총장님께,

시리아와 이라크의 국민들은 수년간의 전쟁과 폭력으로 불안정하고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생명과 생계, 그리고 자유가 반드시 보호되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시리아와 이라크의 교회는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내전과 전쟁으로 기독교인들은 지속적인 폭력과 생명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내전이 종식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극단주의자들의 폭력과 박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 곳의 기독교인들은 희망을 품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과거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였지만, 여전히 인권 유린과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기독교인들과 시민들이 끊임없는 위협과 박해를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하며, 반드시 그들에게 희망이 가득했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기독교인들과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유엔사무총장님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장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01. 시리아와 이라크 내 모든 시민들이 그들의 인종과 종교, 그리고 다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법적인 틀과 제도 안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평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십시오.
02. 모든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조속히 개선되고 지속적으로 보장될 뿐 아니라, 특별히 귀환한 난민들과 해외 체류중인 난민들에게 충분한 가옥, 교육, 일자리 제공을 통해 기본 생활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03. 시리아와 이라크 내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단체들이 사회에서 화해와 재건을 이루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십시오.

2022 년 월 일 대표자 (서명)